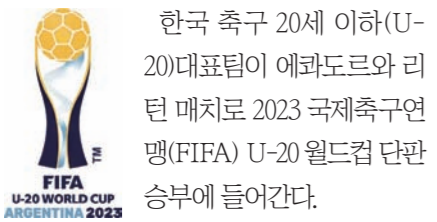


“4년 전처럼”... 에콰도르에 ‘필승 결의’

내일 U-20 월드컵 16강전 ‘외나무다리 격돌’ 박승호 중도하차 악재 딛고 무난한 승리 기대



한국 축구 20세 이하(U-20)대표팀이 에콰도르와 리턴 매치로 2023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단판 승부에 들어간다.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한국 U-20 대표팀은 2일 오전 6시(한국시간) 아르헨티나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 스타디움에서 에콰도르와 16강전을 치른다.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프랑스를 2-1로 잡고 온두라스(2-2), 감비아(0-0)와는 비기며 감비아(2승 1무승점 7)에 이은 F조 2위(1승 2무승점 5)로 U-20 월드컵 3회 연속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조별리그 3경기에서 한국은 4골을 넣고 3실점을 기록한 가운데 매 경기 승점을 챙기는 ‘실리 축구’를 펼치며 FIFA 주관 남자대회 사상 첫 결승 진출을 이룬 2019년의 영광 재현을 향한 첫 걸음을 뒀다.

감비아와의 3차전이 열리는 전 다른 경기 결과에 따라 16강 진출이 이미 확정된 덕분에 김은중호는 감비아전에선 대거 로테이션을 가동하며 체력을 비축하며 단판 승부에 대비할 수 있었다. 16강전에서 격돌할 에콰도르는 한국이 역사를 새로 쓴

2019년 대회때 4강전 상대였다.

4년 전 폴란드에서 열린 U-20 월드컵 당시 정정용 감독이 이끈 한국 대표팀은 이강인(마요르카)의 어시스트에 이은 최준(부산)의 결승 골에 힘입어 에콰도르를 1-0으로 꺾고 결승 진출의 기쁨을 누렸다. 당시 한국은 준우승을 달성했고, 에콰도르는 3위로 대회를 마쳤다.

이번 대회에선 B조 2위(2승 1패·승점 6)로 조별리그를 통과한 에콰도르는 16강 상대 가운데 가장 해볼 만한 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우승 후보로 꼽히는 우루과이나 브라질과 만날 수도 있었지만 에콰도르와 불계된 건 호재가 아닐 수 없다.

온두라스와 조별리그 2차전(2-2 무)에서 골을 넣은 뒤 발목 골절상을 입은 공격수 박승호(인천)가 결국 조기 귀국길에 오르며 전력에 손실을 보게 된 건 김은중호로서 아쉬운 부분이다. 여기에 FIFA가 선수단 이동을 위해 제공하는 전세기 준비에 이상이 생기면서 조별리그가 열린 멘도사에서 16강전이 열릴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로 이동이 하루 가까이 지연된 것도 대표팀 컨디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조영광(오른쪽)이 지난달 29일(한국시간) 아르헨티나 멘도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조별리그 F조 감비아와 3차전에서 마민 산양과 불경함을 하고 있다. 멘도사 AP-연합뉴스

‘강화도 태권소년’ 배준서 첫 금메달

세계선수권 남자 58kg급서 러 선수 꺾고 우승

‘강화도 태권소년’ 배준서(22·강화군청·사진)가 2023 세계 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한국 대표팀에 첫 금메달을 안겼다.

배준서는 지난달 31일(한국시간) 아제르바이잔 바쿠의 크리스탈홀에서 열린 대회 남자 58kg급 결승에서 러시아 출신 개인 중립자격선수인 게오르기 구르트시에프를 라운드 점수 2-0으로 꺾고 4년 만에 왕좌를 되찾았다.

배준서는 경기 시작 2초 만에 주먹으로 먼저 1점을 내렸지만 두 차례 몸통 공격과 한 차례 머리 공격으로 점수 차를 벌리며 10-2로 1라운드를 끝냈다. 2라운드에서도 몸통 공격을 다섯 번이나 성공하는 등 일방적인 경기를 펼치며 15-5로



만이다.

강화도에서 태어나고 자란 배준서는 갑룡초, 강화중고를 거친 ‘강화도의 아들’이다. 그는 2016 캐나다 버나비 세계 청소년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며 기대주로 떠올랐고, 2019년 성인 대표팀에 처음 발탁된 뒤 곧바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는 파란을 일으켰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승리했다.

배준서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건 2019년 영국 맨체스터 대회(남자 54kg급) 이후 4년

‘스마일 점퍼’ 이상혁, 해리슨과 맞대결

3일 피렌체 다이아몬드리그... 바르심·탐베리는 불참

‘스마일 점퍼’ 이상혁(27·용인시청)이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첫 점프를 한다.

이상혁은 3일 오전 3시20분(한국시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열리는 2023 세계육상연맹 로마-피렌체 다이아몬드리그 남자 높이뛰기 경기에 출전한다. 경기에는 이상혁을 포함한 9명의 점퍼가 출전한다.

현역 최고 점퍼인 무타즈 예사 바르심(31·카타르), 2021년에 열린 2020 도쿄올림픽에서 공동 1위(2m37)에 오른 장마르코 탐베리(31·이탈리아)는 불참한다.

최근 이상혁의 라이벌로 부상한 주본 해리슨(미국), 개인 최고 2m40의 기록을 보

유하고 지난해 실의 세계선수권에서 3위에 오른 안드리 프로첸코(우크라이나) 등 세계 정상급 점퍼가 출전해 이상혁과 우승을 놓고 다툰다.

8월에 열리는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 남자 높이뛰기 출전권을 획득한 선수는 이날 현재 총 7명이다.

바르심은 세계선수권 디펜딩챔피언, 탐베리는 2022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 챔피언 자격으로 와일드카드를 손에 넣었다.

세계선수권 기준 기록(2m32) 인정 기간(2022년 7월31~2023년 7월30일)에 2m32 이상을 뒀던 해리슨, 해미시 커(뉴질랜드),



2023 도하 다이아몬드리그에서 2위에 오른 이상혁. EPA-연합뉴스

조엘 바렌(호주), 안드리 프로첸코(우크라이나), 이상혁도 출전권을 확보했다.

로마-피렌체 다이아몬드리그에는 이상

혁, 해리슨, 커, 프로첸코 등 세계선수권 출전권을 확보한 4명이 출전한다.

강력한 우승 후보는 이상혁과 해리슨이다. 28일 만의 재대결이다. 이상혁은 지난달 6일 도하에서 열린 2023 다이아몬드리그 개막전에서 2m27을 넘어 2위를 차지했다. 2m24를 뒀던 바르심은 제쳤지만 2m32를 넘은 해리슨에게는 밀렸다.

2022년 도하 다이아몬드리그 챔피언이었던 이상혁은 대회 2연패 달성에 실패했다. 이상혁은 도하 다이아몬드리그에서 지난해 가을 다친 발목 부상의 재발을 우려해 구름발을 제대로 디디지 못했다.

지난달 9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전을 겸한 KBS배(예천)에서 2m32를 넘은 뒤 부상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보여줬다. 덕분에 지난달 21일 세이코 골드 그랑프리에서는 2m29로 올 시즌 첫 국제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김명준 기자 mjkim@skyedaily.com

WANNA RISE?

ALCOBAÇA Stream
DOUBLE WAVE

WANNA SPIN?

Ray SX-ZERO

RomaRo

(주)유니스골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89-5 인스코빌딩 문의전화 031)726-0085